

서울캠 소통간담회 시설·제도 개선 공감

강다은 기자 ekdms200202@khu.ac.kr

【서울】지난달 22일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대학과 소통간담회를 열었다. 학생 측에는 총학과 단과대학(단과대) 학생회장단, 대학 측에는 학무부총장, 교무위원, 단과대 학장과 행정실장이 참석했다.

소통간담회 1부는 대학재정설명회, 2부는 소통간담회 및 자유질의 시간으로 구성됐다. 1부 대학재정설명회에서는 학교 예산 구조와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부 소통간담회는 학생 측에서 준비한 사전 요구안을 바탕으로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대학 측에서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총학과 각 단과대 학생회장단은 학내 시설, 제도 운용, 교원 인사 등과 관련해 다양한 요구 사항들을 제시했다. 먼저 총학은 ▲기숙사 사용승인 문제 해결 및 대운동장 환경 개선 ▲학점표준화제도 및 학점 부여 방식 개편 등을 요구 사항으로 내세웠다.

총학은 “현재 행복기숙사는 기숙사 진입도로인 경희대로를 둘러싼 학교법인과 동대문구청 간 소유권 갈등으로 정식 사용승인 허가를 득하지 못한 상태”라며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기숙사에 정당한 이유 없는 불안정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대운동장의 천연잔디가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춘 적이 없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과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총무관리처 노승헌 처장은 “(동대문구청과) 상호 협의하에 (정식사

용 승인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올해 말까지는 (정식) 사용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총학은 “학점표준화제도로 인해 다른 대학에 비해 학점 취득에 불필요한 손해를 보고 있다”며 “합리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점 부여 방식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교무처 박하일 처장은 “해당 상황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취업과 진학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사지원팀에서도 총학이 공유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학생 측은 시설 개선과 관련해 ▲중앙도서관 제4열람실 리모델링 및 환경 개선 ▲음악대학(음대) 내·외부 및 지하 연습실 리모델링 ▲크라운관 외관 도색 ▲스페이스 21 배관 누수 개선 및 시설 수리 ▲자율전공학부 공간 및 개보수 요청 ▲호텔관광대학 배리어프리 시설 설치 및 보수 ▲청운관 시설 보수 ▲체육시설 보수 등을 제기했다.

기획조정처 김종백 처장은 “음대를 포함, 각 단과대의 시설 이슈를 인지하고 있다”며 “추가 예산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우선순위를 가려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스페이스 21 건물 누수 문제에 대해선 관리팀 한덕영 팀장이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며 “최대한 방학 내에 해당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과대학(의대)과 치과대학(치대)은 ▲교내 시설 대여 제도 개선



지난 22일 총학생회가 주관한 서울캠퍼스 소통간담회에서 학생대표-대학본부 간의 대화가 이뤄졌다. (사진=강다은 기자)

을 요구했다. 의대와 치대는 교내 시설 대여를 요청했을 경우 코로나 이전에 없던 시설 대여료가 발생했으며, 단과대 행정실을 통해서도 예약이 불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이에 평화의 전당 김준현 부관장은 “(시설 대관은) 계획서를 받아보고 학생지원센터와 상담 후 교내 행사로 진행 가능하다”며 “(시설 대여료가 발생한 경우는) 교내 행사가 아닌 학생끼리의 자체 행사라고 전달받아 대관료를 안내했다”고 전했다.

소통간담회를 마치며 권오병 학무부총장은 “해당 의견에 대해서는 잘 반영할 것”이라며 “대면 학기 개강으로 다시 하드웨어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가 그 신호탄이 된 것 같다”며 “소통 간담회가 자주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캠 총학 역시 “이번 간담회는 끝이 아닌 학생과 대학 간 원활한 소통의 시작점이다”며 “추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화를 나누기로 약속했다”고 전했다.

▶4면에서 이어짐

우리학교 - 동대문구청
사용승인 양해각서 체결

그러나 ‘공공도로 확보 문제’에 대한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정식 사용승인의 발목을 잡았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 2016년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구청 사이에 내려진 대법원판결이었다. 당시 법원은 구청이 공공도로로 사용 중인 경희대로 부지 일부가 법인의 사유지라며 소를 제기했다. 소송 끝에 대법원에서는 경희대로 부지를 사유지로 인정하며 구청이 법인에 도로부지에 대한 그간의 부당이득금 14억여 원과 매년 약 1억 4,0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구청은 “행복기숙사 건축 신청 당시에는 경희대로를 공공도로라고 했다가 이를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모순이다”며 “금액을 지급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고 반발하며 문제가 지속돼왔다.

그러나 상황이 반전돼 지난해 말부터 양측 간 협의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했고, 지난달 17일 상호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에 따라 행복기숙사 사생들의 주거권 확보와 더불어 소통간담회에서 총학생회가 요구했던 ‘행복기숙사 앞 운동장 환경 개선’ 논의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구청의 토지 무상사용 승인 안건이 법인 이사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제 행복기숙사의 정식 사용승인까지 법인 이사회와 교육부의 승인만이 남은 것이다. 노 처장은 “지역 상생 방안 마련 등 작은 문제들은 남아있지만, 정식 사용승인을 막았던 큰 문제는 해결됐다”며 “법인이사회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올해 말까지는 정식 사용승인이 성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의계획서 미입력·변경...학생들 불만 토로

정혜원 기자 jhw00070@khu.ac.kr

강의계획서가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강의계획서에는 수업 개요와 목표, 수업 방법과 주차별 강의 내용 등 다양한 정보가 담긴다. 강의계획서가 입력되지 않으면, 학생들은 강의명과 시간만으로 강의를 선택해야 한다.

지난달 5일부터 11일까지의 수강신청 기간에도 강의계획서가 입력

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례가 속출하며 학생들의 불만을 토로했다. 사학과 A 씨는 “4학년 수강신청 날짜가 지난 후에야 강의계획서가 올라왔다”며 “게시된 강의계획서마저 자세한 수업방식이 나오지 않아 정확히 어떤 수업을 하려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강의계획서라면 희망과목담기를 하기 전에 다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의계획서 일부가 변경되면서 학생들은 혼란을 겪기도 했다. 강의계획서에서 비대면이었던 강의가 수강신청 이후에 대면으로 바뀐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수강신청이 다 끝났는데 운영 방식을 바꾸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정 기간 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답답함을 표현했다.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조사한 ‘강의계획서 입력 통

계’에 따르면, 미흡한 강의계획서를 제외한 입력 비율은 7월 30일 기준 84%에 그쳤다. 집중 수업을 진행하는 강좌 66개를 제외하고, 전체 강좌 2,218개 중 강의계획서가 미입력된 강좌는 202개, 미흡하게 입력된 강좌는 148개이다.

학사지원팀은 “미입력 사유는 신규 임용 교강사의 시스템 접속 불가 또는 주차별 수업 운영방식의 미확정으로 파악됐다”며 “빠른 입력을

위해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해당 교강사분들에게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캠 총학은 강의계획서 미입력 및 미흡 신고창구를 수강신청 확인 및 정정 기간인 오는 9월 7일 18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캠 총학은 “교무처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강의계획서 입력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